

대번에 헤아려보신 부족점

주체103(2014)년 11월 어느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어느한 식료 공장을 찾아주시였다.

이날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그이께서 깊이 관심하신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로동자들에게 더 좋은 생산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종합지령실에 들리시였을 때였다.

이곳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한 일군에게 조종탁의 아래 부분을 가리키시며 여기에는 무엇이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그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이번에는 의자를 조종탁앞으로 바투 가져가시는것이였다.

(왜 그러실가?)

모두가 영문을 알수 없어하는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몸소 의자에 앉으시여 무엇인가를 가늠해보시였다.

그러시고는 이런 책상에 마주앉아 오랜 시간 일하느라면 다리가 아플것 이라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책상밑을 둘러막다나니 지령원들이 다리도 펴지 못하고 불편한 자세로 일하고있는것을 대번에 헤아려보신것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책상옷판을 사람이 앉는쪽으로 좀더 나오게 하든가 아니면 책상을 다른것으로 교체해주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이 받은 충격은 컸다.

그때까지 공장일군들은 물론 이곳을 찾았던 많은 사람들중 그 누구도 지령원들이 불편을 느낄수 있다는데 대하여 생각지 못하였던것이다.

하지만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종합지령실을 돌아보시는 길지 않은 그 시간에도 그들이 느끼게 될 자그마한 불편까지도 대번에 헤아려보시고 부족점을 바로잡도록 하신것이다.

진정 인민의 이익과 편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시며 그 실현을 위해 늘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불같은 사랑이 낳은 또 하나의
감동깊은 일화이다.